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12월의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맞이할 설렘에 우리 마음은 들떠있습니다. 마당을 쓸고 하얀 모래를 깔아 귀한 손님을 맞았던 옛사람들처럼 우리도, 욕심의 먼지 일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모신 기쁨에 감사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살아온 우리의 나날을 돌아봅니다.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이 우리 내면의 풍경인 듯싶어 부끄럽습니다. 들쭉날쭉 제멋대로인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해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혀 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66:20
인도자	
♠ 교 독 문	38. 이사야 42장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건호 선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3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함께	
성경봉독	딤후6:15-16
인도자	
	마3:1-12
	한선희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우리 아버지
	김기석 목사
	키를 드신 메시아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387. 나는 예수 따라가는 다함께
 헌금봉헌<오보에 연주 : 이일주>.....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소리를 발하는 사람이 되십
 시오. 낙심한 영혼들이 살맛을 되찾도록 도와주고, 지친 이
 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십시오.

다 함 께 : 마음을 비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는 아직도 세
 상의 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우
 리의 귀가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그 길이 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열정과
 인내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4여선교회 주최예배	12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동천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인걸 오진훈 임창선 허정윤 정경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중수 구성실 이기분 박혜경

초겨울에 내린 단비

지난 화요일 천안 단비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쌀 판매 대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사람 정훈영 목사의 삶의 자리를 보고 싶은 생각이 더 컸습니다. 사람의 발자취가 끊긴 들판에는 고요가 왕 노릇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논과 밭의 휴식은 장엄했습니다. 텅없는 상념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단비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접어 올린 털병거지를 쓴 채 그 땅의 농부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정훈영 목사가 심심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교회 마당은 작업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마당 한 켠에는 흙벽돌을 찍기 위해 퍼온 붉은 색 흙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 켠에는 목공용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 단비교회는 지금 흙과 나무로 교회를 건축하는 중입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젊은이들 몇이 우리 일행을 보더니 고개를 조금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들은 몇 해 전부터 농번기가 되면 단비교회에 내려와 농사일을 돕던 청년들인데,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는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그곳에 내려와 정 목사의 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땀흘리기 싫어한다고 말하곤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박하고 조용한 그들의 몸가짐은 마치 수도자의 몸짓을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는가 물었더니 정 목사는 싱겁게 말합니다. 눈이 많이 내린 지난 겨울에 할 일도 없고 하여 교회 모형을 제작해 보았는데, 그게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차에 인근에 있는 어느 수도자들이 정 목사의 사정을 알고 삼천 만원을 현금함으로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의 산판에서 소나무 목재를 사는 일에 필요한 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구입해온 나무를 마당에 쌓아놓고 혼자서 나무를 말리고, 껍질을 다듬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처음 지어보는 통나무 교회당이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난관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적절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곤 했습니다. 눈도 귀도 이미 어두워진 팔순의 목수가 와서 자기 경험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예배당으로 쓸 공간이며, 종탑이며, 친교실 등 교회의 여러 시설들이 전통적인 우리 가옥 구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량식을 하면서 얽은 마룻대에 정 목사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적어두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로 내리시는 하나님 은총에 힘입어, 2004년 10월 16일 들보를 엮다 할렐루야”. 저는 말없이 이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 실천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다는 말을 듣고 긴장했었다며 웃던 사모님이 점심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정 목사 내외가 지었다는 흙집은 아늑했습니다. 거꾸집에 흙을 채워 넣고 그것을 찰지게 다지는 내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동, 기도로로서의 노동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된장찌개와 나물, 수육과 배추 쌈이 먹음직했습니다. 정 목사는 마침 김장을 한 참이라 상차림이 격식을 갖추게 됐다며 싱긋 웃었습니다.

노동과 기도, 이것은 수도원의 생활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몸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몸의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없는 삶, 땀흘림이 없는 삶의 창백함을 이야기했더니 정 목사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눈치입니다. 그는 노동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노동 없는 삶의 맥없음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서없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자니 청년 하나가 말없이 일어나 그릇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물조차 세계 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그 청년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박하고 운유하고 고요한 그 청년들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정 목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와 노동을 통해 헛된 욕망을 말끔히 씻은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에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룬 듯 보여도 정신이 왜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스며들어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마침내 그곳에 희망과 생명의 씨를 심는 사람들. 그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저는 이번 주간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초겨울에 제 마음에 내린 단비입니다.(석)

능동적인 기다림

기다림이란 복음서의 첫 페이지에 기록된 사람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사가랴여,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눅1:13, 31).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리게 해주는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자라기 시작한 씨앗처럼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것을 받았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가 우리를 위해 이미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다릴 수 있다.

둘째로 기다림은 능동적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다림이란 우리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건에 의해 결정된 소망이 없는 상태요, 매우 수동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버스가 늦어지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야만 한다. “잠자코 기다리시오”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 말들은 우리를 수동적인 상태로 밀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러한 수동성은 없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단히 능동적으로 기다린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바가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대지에서 자라고 있음을 안다. 그것이 비밀이다. 기다림의 비밀은 씨가 심기어졌으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란 당신이 머무는 그곳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확신과 그 사실을 마음에 품기 원한다는 확신을 가득히 안고 현재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며 바로 지금이 순간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헨리 나우웬 신부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이용한 오성희 김민걸 문영혜 한상익 정영선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김용진 박효선 박성수 김애경 조문규
 진정숙 김용길 최영혜 이봉옥 이소순 이은옥 박시내 신윤정 김용원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이지훈 백묘현 김홍기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권미정
 박범희 박석희 조항미 박준희 이기분 김성자 이희균 김영한 고숙이

감사헌금:

박창운 허정운 김성길 방정자 황경순 조관행 홍선희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베들레헴	윤정덕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속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한선희		
빌립보	최종원	이형숙		
가버나움	구성실	안홍숙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두란노	안종일	정현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제4여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2. **공천위원회** : 2005년도 교회 임원을 공천하기 위한 당회 공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3. **기도의 밤** : 8일 오후 7시 30분에 금년도 마지막 기도의 밤이 열립니다. 영적 재충전의 기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 **당회** :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한 모든 이들이 당회원입니다.
5. **하늘양식** : 가정예배서인 하늘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서에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에 두 권 이상은 곤란합니다.
6. **주소록** : 2005년 교우주소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속회와 선교회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삶이 분주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우리 삶이 표류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 헌화 : 임창선 권사 (남편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